

## 유공상이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보훈처·포스코1%나눔재단 협력

국가보훈처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전·공상으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만 45세 이하(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국가유공상이자이며, 이달 14일 오후 5시까지 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최종지원자를 선정한다.

첨단보조기기 신청대상은 △로봇의족의 경우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의지, 종아리의지 △로봇의수의 경우 아래팔의지, 전자의지, 위팔의지, 어깨관절의지, 손목관절의지 관련 보철구를 지급받은 상이유공자이다.

신청자는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중앙보훈병원, dyhhjh@bohun.or.kr)로 접수하고, 접수 후 반드시 보장구센터에 전화(02-2225-1263)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070-7118-1196.

## 정부혁신 어벤저스 출범



바람직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제2기 국가보훈처 정부혁신 어벤저스'가 지난달 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이번 '정부혁신 어벤저스'는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공무원들이 기존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혁신 동아리 모임으로, 공직사회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있고 열정과 애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젊은 공무원 중 기관, 성별, 직급 등을 고려해 총 16명을 선발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지난달 11일 서울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기념사를 대독하고 있다.

## “선열 연대·협력정신 이어 위기 이겨낼 것”

###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열려 “국가 위한 헌신 끝까지 예우 유해봉환 사업 지속 추진”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 야외 광장에서 개최됐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각계대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99명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께서 그토록 갈망하시던 독립된 나라, 내 땅의 흙 한 줌, 풀 한 포기 간절함과 바닷물도

춤을 추게 하는 가슴 벅찬 설렘이 10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우리 후손들은 숭한 가시밭길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립유공자 여러분과 가족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합당한 예우와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변함없이 예우하겠다”고 약속하고 “머나먼 이국땅에 잠들어 계신 분들이 따뜻한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봉환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임시정부 역사 동안

가장 활동이 왕성했던 시기는 바로 좌우가 연대하고 협력할 때였다”며 “선열들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날을 힘차게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 국기 입장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남상락 자수 태극기, 임시 의정원 태극기, 김구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가 함께 입장했다.

기념식 중에는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첫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을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2023년까지 증축

### 최신장비 교체 계획도

서울 수도권의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직무대행 윤정로) 치과병원 증축 기공식이 지난달 15일 열렸다. <사진>

새 치과병원은 1984년 건립된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2023년까지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503㎡ 규모로 다시 태어난다.

새 치과병원에는 보철과, 치주



과 등 6개 진료과가 들어서고 유닛케어도 기존 76대에서 110대로 늘어날 예정이며, 의료진 확충과 최신 장비로 교체로 진료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기존 병원은 본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국가유공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질 없이 치과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 나라사랑 narasarang shinmun

발행일 2021년 5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처 발행인 황기철  
대표전화(정책·민원·상담) 1577-0606  
편집·배포 044)868-0746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국가보훈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간 1963년 9월 19일 누리집 www.narasarang.kr

기사 중 QR코드를 통해 동영상 정보를 제공합니다.